

## 민주당 넘치고 광주·전남 6·1 지방선거 후보 국힘은 인물난

“민주 공천은 당선” 단체장·의원 예비후보 공모 1100여명 몰려 국힘, 대선에서 10%이상 득표율 올렸지만 후보 기근 현상 정의·진보당은 기초의원 중심으로 후보군 포진해 ‘약진’ 노려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6·1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출마 예정자들이 붐몰을 이루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등 나머지 정당들은 여전히 ‘후보 기근 현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이 민주당 텃밭인 만큼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점에서 출마 예정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동안 광주·전남이 불모지였던 만큼 지속된 ‘인물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각 정당의 광주시장·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만 1100여 명의 출마 예정자들이 몰려들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공모에 광주는 250여명 기량이, 전남에서는 800여명이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따라서 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도당은 후보자 검증 작업에 돌입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는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준호 변호사 등이 공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남지사 선거는 현역 국회의원 당직 사퇴 시한까지 10명의 의원 모두 당직을 내려놓지 않아 사실상 김영록 전남지사가 경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광주와 전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인 10% 이상의 역대 최대 득표율을 올렸지만, 여전히 후보 기근 현상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22일 중앙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주재하는 전국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의힘은 광주시장 후보를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고, 전남지사 후보군으로는 3명이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순천을 지역구로 당선된 3선의 원 출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최근 출사표를 던진 이종호 영암·무안·신안 당협위원장 등이 있다.

자치단체 선거에서는 광주의 경우 1~2명이 자치단체장 선거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측은 전남 22개 시·군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0개 지역 이상에 후보자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입지자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장 관계자는 “여전히 지방선거 출마자를 찾기 힘들다”면서 “그동안 호남에 공을 들여온 이준석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비례부터 시작해 조금씩 광주·전남에서 저변을 넓혀가자는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방의원 중심의 비례 대표 후보들을 배출할지 주목된다.

정의당도 후보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광주시장의 경우 장연주 광주시의원이 출마를 결정한 상태고, 광주시의원 후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의원 후보로는 6명이 준비중이며,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 등록 신청일인 내달 12일까지 지방의원 후보자들을 더 찾아볼 예정이다.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 조만간 정의당 전남도당 인사가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영암과 목포 등 2개 지역에 후보자를 내고, 표밭 같이 나선 상태다.

진보당은 일찌감치 김주열 광주시장 위원장이 광주시장 선거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장을 지낸 민점기 후보가 전남지사 선거에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진보당은 광주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 지방의원은 비례 포함해서 26명이 출마한다.

지역평가 관계자는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도 여전히 텃밭이라는 점에서 출마예정자들이 줄을 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호남에 공을 들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광주·전남지역이 불모지인 만큼 인물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일당 독점’의 민주당을 제외한 어떠한 정당이 약진을 할 지가 관전 포인트다”고 전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대 ‘대명매’ 꽃망울 활짝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인 21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에 ‘호남 5매’로 손꼽히는 ‘대명매’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소상공인과 상생할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 광주시, 대 전환 특별위 다음 주 유치 방안 발표

최근 광주지역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던 복합쇼핑몰 유치 방안의 밑그림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대 전환 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중 중간 보고회를 열어 분야별 과제, 전략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제시한 비전인 ‘그린 스마트 펀(Green Smart Fun) 시티’ 구상을 위해 지난해 말 출범한 특별위의 중간 보고회 성격이다.

광주시는 다만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만큼 정치적 논란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추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해서는 ‘소상공

인과 상생할 수 있는 광주형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 추진’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 어등산 등 입점 검토 지역, 창고형 또는 프리미엄 아웃렛 등 매장 형태를 언급하기에는 다소 이른 상황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최근 2개 업체와 접촉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입지까지 검토한 상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울산, 창원, 서울 등 도시와 달리 광주에는 소상공인들이 지역과 아픔을 함께 한 역사가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 유치가 바람직하다”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전, 서울까지 가지 않고 광주에서 물건을 떼고 외지인이 복합쇼핑몰을 찾아와 재래 시장도 들고, 공연도 보고, 숙박도 하는 효과를 내도록 위치와 품목을 정하는데 소상공인과 상생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부담 민주,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영천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위 및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조 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재산세·종부세)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인박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집값 급등 이전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바이탈뷰티

##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